

민주, 정진석 ‘野집회 日의원 참석’ 비판 “일본에 아무 말도 못해”

민주 황명선 대변인, 與 정진석 향해 직격 가해 “정진석, 과거사 재판 거래 외교 해법이라 두둔” “양국 현안 함구...김건희 문제에 득달같이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집회에 일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붙을 가리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마땅히 일본에 항의해야 하는 문제에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 일본에는 아무 말도 못 하는 꼴이었

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 집회에 일본 국회의원이 참석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차하다. 김 여사 스톱킹 정당으로 자리매김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제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난

했다.

황 대변인은 정 위원장을 향해 “일본의 책임을 뺀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옹호하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과거사 재판 거래를 ‘외교적 해법’으로 두둔했던 정진석 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옹호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양국 현안에 대해선 함구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는 득달같이 나서는 모습이 황당무계하다”고 꼬집었다.

황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지키”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 대통령 부인이 추가조사 공범이라고 일본에 자랑하자는 것이냐”며 “정진석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한일 현안에



국민과 국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이슬기자

안철수 “김기현, 尹 마음에 드는 대표 목표...총선 책임자 아냐”

“金, 민심보다 윤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7일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 마음에 드는 대표가 목표”라며 “그런 관리형 대표가 되려면 총선 승리 후에 대표 맡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총선 승리 책임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후보는 왜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과 당대표가 신뢰 속에

서 호흡이 잘 맞는 게 나쁜 건 아니”라면서도 “문제는 민심보다 윤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저는 총선승리만 생각하는데 김기현 후보는 전당대회 승리만 생각한다. 총선승리의 절박함이 없다”며 “김기현 후보가 총선 승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대권 주자가 당 대표 맡으면 안 된다는 배부른 소리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제원 의원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말을 했을 때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어야 한다고 바로 잡았어야 한다”며 “안철수가 대표 되면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신편 변호사가 발언했을 때 말리기는커녕 안철수가 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 우려가 있다는 더 우려스런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김 후보가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인사들과 공천을 상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위험한 발언”이라며 “공정한 공천 관리가 당 대표의 가장 큰 책임이다. 2016년 공천 파동이 총선 패배로 이어진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후보는 스스로 힘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만들어준 사람들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 “내년 총선은 수도권이 최전선”이라며 “치열한 수도권 선거 경험이 없는 당대표가 총선을 지휘하면 안 된다.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고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총사령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기현 후보는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 자신했다. 그 말을 스스로 믿는다면 수도권 힘지 어디 나가도 된다”며 차기 총선 수도권 출마를 압박했다.

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지금 당 대표 되면 안되는 이유는 총선 승리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순신 낙마에 ‘인사참사 TF’ 꾸린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전면 대응 나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폭력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우는데 우리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나 학교폭력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후 본회의에서 예정된 체동의안 표결을 앞둔 심정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외에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불체 포퓰리즘 등과 관련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정순신 낙마’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관련 TF를 구성해 대

응한다는 방침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에 따른 인사 참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 전면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1시30분께 원내대표 주재로 관련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단과 함께 논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를 겨냥해 “이 사안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권력 전횡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학폭 가해자 입학 과정의 문제점,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과 관련 책임, 제도 개선 문제까지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관련 문체 대상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사 참사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수석대변인은 “인사검증단이 법무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인사혁신처 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정책위 차원에서 이뤄지고, 관련 법안이 발의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김재환기자 정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